



Web Contents



2024년 05월 06일 00시 59분

목포시,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 '베스타스' 공장 유치

2024.04.23 조희수 133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http://www.mokpo.go.kr>)



- 목포 신항,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전진기지로 우뚝!
-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머스크, 전라남도과 투자협약 체결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포시의 포부가 가시화되고 있다.

목포시 박홍률 시장은 지난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이하 베스타스), A.P. 블러-머스크 A/S(이하 머스크),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목포신항 내 해상풍력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 신규투자를 위해 목포신항을 비롯한 전남지역을 여러차례 방문해 보유항만시설 및 산업활성화 가능성 등 투자여건을 면밀하게 타진해왔고, 최종적으로 목포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1위 풍력 터빈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통합물류 기업인 머스크는 3천억원을 공동 투자해 목포 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200,000m(약 6만여평)를 확보하고, 연 최대 150대 생산 가능 공장을 건립, 20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핵심부품 국산화 등 지역 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머스크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해 목포 신항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박홍률 시장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해상풍력기업이 목포시에 투자를 확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은 목포시가 글로벌 해상풍력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스타스 터빈공장이 신항에 잘 자리잡아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목포 신항이 해상풍력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포 신항은 해상풍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적의 입지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 전용 인프라 확충, 통합 기업지원센터 구축,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산업 측면의 한계에 봉착한 전남 서남권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해상풍력 신산업을 통한 유관기업 대거 유입,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신산업팀장 박철우 270-8968, 주무관 정재원 270-4049)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1.목포시,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베스타스'공장 유치.jpg (15 hit/ 683.9 KB)	↓
미리보기	
 1-2.목포시,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베스타스'공장 유치.jpg (15 hit/ 671.7 KB)	↓
미리보기	
 1-3.목포시, 세계 1위 해상풍력터빈사'베스타스'공장 유치.jpg (15 hit/ 679.3 KB)	↓
미리보기	

MokPo - Si
Web Contents

